

아이디어를 성공시키는 5가지 절대법칙

스케일의 법칙

존 리스트 지음, 이경식 옮김

아이디어가 성패를 결정하는 시대다. 아이디어 하나로 상상을 초월한 성공을 하기도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

물론 모든 아이디어가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어떤 아이디어는 차라리 시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 한 경우도 있다. 어떤 아이디어는 성공을 견인하고 어떤 아이디어는 실패로 귀결될까.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것을 '스케일'로 규정할 수가 있다. 시카고 경제학부 종신교수인 존 리스트는 2015년 노벨경제학상 역대 최연소 후보에 올랐다. 그가 펴낸 '스케일의 법칙'은 현장실험으로 밝혀낸 '아이디어를 성공시키는 핵심전략'을 기술하고 있다.

저자는 전미경제연구소와 노동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 미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산하 환경 및 자원경제학 분야 선임 경제학자를 역임했다. 또한 아마존, 크라이슬러 등과 같은 세계적 기업에서 가격 책정, 시장구조 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책은 전미베스트셀러, 2022년 아마존 올해의 책, RePEc 선정 세계경제학자 영향력 7위에 선정될 만큼 인기를 끌었다. '넛지'의 공동저자인 캐스 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존 리스트는 경제학자이자 과학자이며 마술사이기도 하다. 그는 세상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그 방법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 책은 내가 읽은 최고의 경제학 서적이며 행동경제학의 최신 고전이다"고 평한다.

일반적으로 스케일하면 규모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아이디어를 어떻게 운용하고 확장하는가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

그러나 저자가 말하는 스케일은 '작은 규모에서 성공을 거둔 아이디어가 더 큰 규모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확장되는 것'을 전제한다.

먼저 저자는 규모 확장을 가로막는 5가지 신호에 대해 설명한다. 긍정오류, 과대평가, 잘못된 판단, 파급효과, 비용의 함정이 그것이다. 좋은 아이디어라는 거짓된 믿음은 일반적인 긍정 오류에 해당한다. 특히 과거에 유용했다는 점에 집착하면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해칠 수 있다. 과대평가는 고객을 잘못 선택하는 실수를 말하며, 성공의 핵심 요인을 오해하는 경우는 잘못된 판단과 연계된다. 의도치 않은 결과가 일으키는 파장을 계산하지 못한 경우의 파급효과는 상상 이상이 다. 또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없는 비용 조건을 가

지게 되면 비용의 함정에 빠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규모확장을 이끌 수 있을까. 저자가 제시하는 4가지 기술은 인센티브, 한계혁명, 포기의 타이밍, 문화의 규모 확장성이다.

먼저 저자는 손실 회피와 같은 행동경제학적 인센티브를 사용해서 신속한 이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한계혁명은 운영 과정에서 쉽게 놓쳐버리는 여러 기회를 활용하고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시의적절하게 포기할 줄 아는 판단력을 의미는 포기의 타이밍과 확장된 규모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신뢰와 팀워크로 대변되는 문화의 규모 확장성도 저자가 강조하는 전략이다.

〈리더스북·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길 위의 수학자를 위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인류 역사상 시간과 공간의 인식을 바꾼 사상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다룬 책, 우주의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이론으로 꼽히는 상대성 이론을 물리학과 수학의 언어로 도출해낸다. 마냥 어렵다고 느껴지는 상대성 이론을 간단한 대수와 약간의 기하학을 소지한다면 비교적 쉽게 배워볼 수 있다. 〈공리·2만3000원〉

▲우리와 그들의 정치=저자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의 정당한 전술과 파시스트 정치의 전술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 상상할 수 없던 일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려는 집단적 경향이 파시스트 정치의 징후라고 말하며 도덕적으로 이상한 것을 평범한 것으로 만드는 것들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민주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파괴시킨다고 말한다. 〈솔·1만7000원〉

▲명어가 알려주는 음주의 과학=지치고 힘든 날 번뜩이며 생각나는 것, 다음아닌 '술'이다. 사고몽치가 되기도,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는 술을 '건강하게' 마시는 법을 소개한다. 사람에 따라 왜 술을 잘마시고 못 마시는지, 술을 마시면 근육이 생기지 않는지, 술이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등 애주



가로 하여금 궁금했던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했다. 〈시그마북스·1만6000원〉

▲갈수록 자연이 되어가는 여자=허기지고 굶주린 시 속으로, 결코 나를 놓아주지 않을 시 속으로... 자유로우면서도 절제된 화법, 유산한 시어의 반박으로 리듬과 변화를 창조하는 매혹적인 표현법을 가진 김삼미 시인의 다섯번째 시집. 메마른 어제의 생애 속에서 꺼내올린 시어들로 절실하게 시쓰기와 시인됨을 얘기한 다. 〈문학동네·1만 원〉

어린이·청소년 책



▲에이해브와 흰 고래=흰 고래 모비딕에게 다리를 잃은 뒤 모비딕을 찾기 위해 기나긴 여정을 떠나는 에이해브 선장, 광활하고 변화무쌍한 바다와 싸우며 어딘가를 유영할 모비딕을 찾아 헤맨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모비딕, 그런데 정말 모비딕은 그렇게 멀리 있을까?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책. 〈밝은미래·1만8000원〉

▲안젤로와 곤돌라의 기나긴 여행=이탈리아 베네치아의 관광객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온 머그컵 안젤로와 플라스틱 냉장고 자석 곤돌라, 한때는 주인에게 사랑 받았지만 잊혀지게 된다. 결국 쓸모를 잃게 된 안젤로와 곤돌라는 쓰레기통에 버려

지게 되고 이곳 저곳에 옮겨다니게 된다. 그렇게 바다에 도착한 둘, 하지만 안젤로는 흙으로 돌아가는 영원한 잠에 빠진다. 남겨진 곤돌라는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를 통해 자신은 영원히 잠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된다. 〈시금치·1만8000원〉

▲이 선을 넘지 말아 줄래?=싱싱한 지렁이를 잡은 분홍 새, 나뭇잎에 씹은 찌꺼기 한 입에 쏙 먹으면 참 맛있겠지만 친구와 함께 먹기 위해 꼭 참는다. 하지만 친구 하늘새 새의 반응은 차갑기만 한데, 넘어오지 못하게 선을 갖고 속상하지 않게 "지금은 내가 바빠서"라며 회피한다. 분홍 새는 하늘새 새의 반응에 서운하기만 하다. 〈한울림 어린이·1만5000원〉

아시아 9개국 9명의 젊은 작가가 바라본 코로나 시대 '절연'

절연

정세랑 외 지음

'보건의료 안연영', '시선으로부터의' 정세랑 작가는 출판사로부터 동시대 일본 작가와 책을 써보지 않았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단단한 우정의 범위를 더 넓혀보고 싶었던" 그는 범위를 확장해 아시아 지역 작가들과 함께 책을 만들면 어떻겠냐고 다시 제안했다.

작품집의 키워드는 '절연'으로 정했다. 우리가 힘들려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잘 압축해 표현할 수 있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다양한 '절연'의 모습을 담은 소설집 '절연'이 나왔다. '언어의 차이와 공간적 거리를 넘어' 탄생한 책에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티베트,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9개, 9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책은 문학동네와 일본 쇼가쿠칸에서 동시에 출간됐고 다른 나라에서도 발간될 예정이다.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9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각 언어를 전공한 일본의 7명의 작가가 번역하고, 그것을 도쿄에 거주하는 흥은주 번역가가 다시 한글로 옮겼다. 표지는 상하에서 활동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자오원신의 작품으로, 같은 그림을 일본과 한국의 디자이너가 정서에 맞게 재해석했다.

작품집에는 아쿠타가와상, 미시마유키오상을 수상하고 '편의점 인간'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무라타 사야카, SF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휴고상을 수상한 중국의 하오징팡 등이 참여했다. 형식은 미스터리, 사회소설, 디아스포라 문학, SF 등 다채롭다.

"말에가 장애에 '무(無)'가 되고 싶어서, 난처하네요."로 시작되는 무라타 사야카의 소설 '無'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사회를 '혼돈'이라 부르며 '무(無)'가 되기를 택하는 삶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하오징팡의 작품 '긍정 벽돌'은 사람의 손발이 닿는 모든 곳이 긍정 벽돌로 만들어진 긍정 시티에서 '긍정 멘탈 테라피스트'로 일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다.

정세랑의 작품 '절연'은 대학시절 폭력적인 남자친구에게서 자신을 구해준 선장-형우 커플이 세월이 흘러 성추문 문제를 일으킨 윤찬의 복귀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을 알고 더 이상 같은 윤리관을 공유하지 못하게 된 가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태국 작가 위왓 린위왓원사는 실패한 혁명 이후를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의 고뇌를 그린 '불사르다'를, 홍콩의 홍라이주추 작가는 근 미래를 배경으로 감시 사회의 단면을 날카롭게 묘사한 소설 '비밀경찰'을 선보인다. 그밖에 티베트 라삼자 작가의 '구멍'이 속에는 실현화가 되어 있다, 대만 작가 렌잉웨이의 '세리스 아주머니의 에프터 티눈' 등을 만날 수 있다.

책 마지막에는 정세랑과 무라타 사야카의 대담 '이전 시대와 헤어지는 일'이 실렸다. 〈문학동네·1만7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